

기고

박성원 국회미래연구원 혁신성장그룹장



### 블랙미러와 미래공포...기술과 사회의 탈동조화

일찍이 나의 미래학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공상과학소설(SF) 영화 관람 금지령을 내린 적이 있다. SF영화가 상업성만을 추구하다 보니 영화에서 그려내는 미래가 대부분 자극적인 디스토피아여서 그렇다.

영화 속 인물들은 속절없이 당하다가 기적적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줄거리는 미래를 매우 공포스러운 시공간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해 반(反)미래적으로 보일 수 있다.

좋아하는 영화관에 못 가고 주로 집에만 있어야 하는 요즘, 나는 시간을 보내는 적당한 방법으로 온라인 영화 시청을 택했다. 미국의 주문형 콘텐츠기업인 넷플릭스에 가입해 영화 목록을 쓰느 훑어보는데 '블랙미러' (Black Mirror)라는 드라마 시리즈가 눈에 띄었다. 장르를 보니 SF. 지인 몇 사람이 이 시리즈를 추천한 기억이 났고 나는 약간 주저하면서(선생님의 SF 관람 금지령이 떠올라서) 블랙미러 첫 편의 시작 단추를 꼭 눌렀다.

그렇게 블랙미러로 빨려 들어간 나는 요즘 퇴근하면 이 시리즈를 본다. 그렇다고 이제까지 못 본 것을 내리 시청하지는 않고 꼭 한 편씩만 시청한다. 결론이 대부분 어

둑고 슬퍼서 저녁 10시 이전에는 시청을 끝내야 잠자리에 들 수 있고 한 편마다 생각할 거리가 많아 다음 편으로 넘어가기 힘들다.

대놓고 상업적 SF영화를 광고하고 싶지 않지만 이 시리즈의 제작자와 작가는 대단하다. 압축적 절제미, 스타일리쉬한 전개, 빈틈 없는 줄거리, 가볍게 톡 던져진 대사에서도 철학적 깊이가 느껴진다. 이미 2011년 영국에서 첫 방영될 때부터 화제였다고 하니 나는 늦어도 너무 늦은 팬이 됐지만 그게 뭐 대수인가. 재미있으면 됐지.

블랙미러를 계속 볼 계획이지만 예전 SF금지령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 이 시리즈의 제작자 겸 작가도 밝혔듯 블랙미러는 미래의 기술이 가져올 부정적 영향에 대해 매우 냉소적으로 풍자한 드라마다.

블랙미러가 무슨 뜻인지 살펴보니, TV나 휴대폰이 꺼지고 난 뒤의 깨만 화면이라고 한다. 이 화면은 거울처럼 나를 비춘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온 내용은 나와 내 욕망을 반영한 것이라는 얘기다.

평범한 나도 그 드라마적 상황에 놓이면 기이하고 흥쾌하고 음흉하고 애처롭고 영뚱하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블랙미러라는 이름에 담긴 뜻으로 해석된다.

블랙미러는 기술공포, 더 넓게는 미래공포를 부추긴다. 드라마가 설정한 미래 상황에 놓인 인간들은 그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낙오된다.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그 자체가 공포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그 미래의 작동 방식에 적응하려고 몸부림을 칠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든다. 여기에 안타까움이 생기고 이들의 고통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보면 불수록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기술은 매우 발전한 미래에 왜 인간은 한치의 발전도 없이 지금의 모습 그대로일까. 드라마에서 보이는 기술은 먼 미래인데 그 미래를 살고 있는 인간은 지금의 나, 또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같다. 물론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미래의 기술을 자연스럽게 사용한다. 그러나 기술을 대하는 태도나 인식은 2020년 현재에 머물러 있다.

영화로만 보자면 이상한 점이 없다. 그러나 왜 이런 시대에 남이 나를 복제하는 것을 막는 제도나 법이 없는지 의문이 생긴다. 복제가 자유로운 시대라면 그걸 막는 것도 자유로운 텐데 그렇지 않다. 또 다른 시리즈에서는 모든 시

만인 소셜미디어에 과몰입할 정도로 기술이 발달 돼 있는 미래가 등장한다. 소셜미디어 기업은 마치 전지전능한 신처럼 개인들의 신상을 모조리 알고 있다. 이 미래에서는 경찰도, 미국 연방수사국(FBI)도 이 소셜미디어 기업만큼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며 심지어 이 기업에게 정보를 구걸한다.

블랙미러가 조장하는 미래공포의 기반은 사실 진부하다.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수용성의 격차를 가장하기 때문이다. 1970년대에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느끼는 불안, 소외, 공포를 '미래쇼크'로 진단한 바 있다.

이렇듯 기술과 사회의 탈동조화 현상을 막으려면 기술을 이해하는 시민들이 많아 하고 기술의 미래를 예측해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전문가와 정책자들이 많아야 한다. 인류는 산업화 이후, 기술의 미래영향평가, 급진적 기술의 모라토리엄(일시적 개발 금지) 선언, 기술의 윤리적 선용을 위한 노력,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 등의 노력을 통해 미래쇼크를 막으려고 꾸준히 노력해 왔다.

인간도 기술과 함께 진화하고 발전한다. 기술은 22세기에 인간은 21세기에 머물러 있지 않다. SF영화에서 느껴지는 공포는 나만 시대에 뒤쳐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에서 기인한다. 물론 불안을 적극적으로 드러낼 때 사회적 대안이 마련되는 속도가 빨라질 수는 있겠지만 대안 없이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다. 불안이 팽배한 시대에는 그만큼 희망과 대안이 등장한다.

### 社 說

### 추경 편성 타이밍이 중요하다

유례없이 긴 장마와 폭우로 전국 곳곳에 피해가 발생하면서 네 번째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정치권 이슈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수해 복구 예비비 지출이나 추경 편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하게 고위 당정 협의를 갖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수해복구용 추경편성을 주장했고,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예산이 없다면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국을 할린 수마 피해가 워낙 큰 터라 중앙정부 차원의 강력한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수해복구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4차 추경 편성은 불가피할 것 같다. 수해복구에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야 하는 데 전체 예비비 2조6천억원으로는 사실상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긴급한 수해 복구와 피해 해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추경을 편성할지언정 치밀한 피해 분석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되 적정선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치권에서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수해복구를 위한 긴급 추경 편성 주장이 나올 정도로 수마가 났던 현장의 참상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하다. 정부는 피해 규모가 컸던 강원 철원, 경기 안성, 충북 제천·충주·음성, 충남 천안·아산 등 7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세균 총리는 나중에 피해가 집중된 전남·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절차도 진행하도록 지시하면서 특별재난지역 범위는 확대될 전망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당연히 국가 재정지원이 수반된다.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이 절박하게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나중에 허리띠를 다시 졸라매더라도 미적거리는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 단,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원칙은 지켜야 한다. 우선 정확한 피해 규모를 도출하고 부담의 주체와 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그래야 적정한 예산으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정부·여당은 당정 협의에서 추경 편성을 논의할 때 이런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기상예보 131
▲ 응급질병상담 1399	▲ 법률구조상담 132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인광 알콜상담센터 222-5666
▲ 여성 긴급전화 1366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이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수도 고장신고 12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전기고장 신고 123
▲ 응급의료센터 1399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가 0021 (일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 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62가길 16-1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취준생 노린 '작업대출' 주의보

최근 급전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접근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작업대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업대출 업자들은 주로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해 20대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에게 접근하는 수법이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대학생 등의 제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2금융권 비대면 대출로 총 400만~2000만원 정도를 빌릴 수 있게 해주는 대신 대출금의 30%를 쟁했다.

작업대출은 단순히 금전 피해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작업대출 업자뿐만 아니라

대출 차주 본인도 형사범상 공사 문서 위조 사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돼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취업시에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도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공적 대출을 먼저 이용해야 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유스(Youth)는 연소득 35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층에게 최대 1200만원까지 연 3.5% 금리로 대

출해 준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의 '미취업 청년·대학생 채무조정제도'를 통해서도 금융회사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채무상환 유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한 순간 자칫 유혹의 이끼를 낚 패를 볼 수 있는 만큼 작업대출을 찾기 전에 정부의 공적 대출 상품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재복/고흥경찰서 대서파출소

###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 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애국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